

왕대일 박사의 구약성서 석의에 관한 연구

소기천*

1. 들어가는 말

왕대일 박사(이하 왕대일)의 은퇴기념 논문집을 위해 그의 스승인 롤프 크니림(Rolf Knierim) 교수가 추구한 구약성서를 해석한 방법을 주목하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본 연구는 왕대일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마련된 논문으로, 롤프 크니림의 구약성서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인 상호본문성을 통하여 본문과 상황을 연결하는 방법을 주목하고, 롤프 크니림의 연구를 이어 받은 왕대일이 한국 구약학계에 남긴 공헌을 되짚어 보면서 그의 연구내용을 간추리고, 더 나아가서 구약성서의 석의방법에 왕대일이 남긴 업적을 재조명함으로써 향후 후학들에게 모범적인 석의과제의 길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먼저 상호본문성의 방법을 통하여 롤프 크니림의 연구를 발전시킨 왕대일이 그의 스승이 제안한 본문과 상황을 조화롭게 연결한 방법들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이 후에 구약석의 방법론 가운데 몇 가지를 추려서 왕대일의 연구업적에 어떻게 구약성서 석의과정이 치밀하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팔레스타인 유대교의 다양성을 계약에 기초한 언약적 신율주의(covenantal nomism)라고 정의하는 샌더스(E. P. Sanders)는 다음과 같이 유대교가 언약에 기초한 율법주의의 형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신약학

(1)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다; (2)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다; (3) 이 율법은 선택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하고; (4) 순종을 요구 한다; (5) 하나님은 순종에 보응하시고, 범죄에 처벌하신다; (6) 율법은 속죄의 도구를 제공하고; (7) 이 속죄는 계약의 관계를 지속하거나, 재건할 수 있도록 돕는다; (8) 순종, 속죄,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 계약 안에서 유지되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그룹에 속한다.¹⁾

명백하게도, 이러한 단순한 특징들은 구약성서를 요약한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팔레스타인 유대교가 지닌 그 배타적인 특징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다. 그러나 왕대일의 구약연구는 단순히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성서 본문을 주석하고 분석하거나 혹은 어떤 이론과의 차별성을 논하여 유대교의 배타적인 특징을 드러내는 차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기독교 신앙과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구약신학을 체계화하는 작업²⁾으로 나아간다. 더 나아가서 그는 정교하게 기초를 놓은 그의 구약신학을 오늘의 당면 문제³⁾와 신앙⁴⁾에 해석학적으로 적용한다. 그리고 그는 구약신학을 요청하는 이 시대의 당면 문제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유일신신앙을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으로⁵⁾, 아울러 이 시대를 넘어서 오고 오는 시대를 관통하는 예언적 종말론으로⁶⁾ 승화시킨다. 이런 왕대일의 신학적 관심은 기독교 경학⁷⁾과의 만남을 통하여 기독교 영성의 새로운 깊이⁸⁾에서 구약성서를 삶에

1) E. P. Sanders, *Paul and Palestinian Judaism: A Comparison of Patterns of Religion*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77), 422-423.

2) 왕대일, 『구약신학』 (서울: 감신대성서학연구소, 2002; 2010년 개정판), 119-292.

3) 위의 책, 325-332.

4) 위의 책, 361-364.

5) 위의 책, 406-412.

6) 위의 책, 435-439. 그의 구약성서에 관한 종말론을 성서신학의 틀에서 탐구한다. 구약의 종말론이 다루는 신학사상을 ‘구약에서 신약으로, 신약에서 구약까지’라는 관점에서 다루는데, 이러한 내용이 확장되어 『구약성경의 종말론: ‘그 날’을 향한 소망』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17)로 출간된다.

7) 왕대일, “경학(經學)과 역사비평”, 『신학과세계』 72 (2011), 7-32; idem, “경학으로서의 성서해석”, 『매강류행렬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은혜로운 말씀, 생명과 평화의 길』 (서울: 한들출판사, 2011), 187-204.

해석학적으로 적용하고 주석하는 신앙의 깨달음이 지닌 풍부한 경지로 나아간다.)⁹⁾

2. 상호본문성과 상황

학자들은 구약성서를 연구하는 방법을 일찌감치 터득하여 적용해 오고 있었는데, 그것을 상호본문성이라고 부른다. 이런 상호본문성은 기독교 구약 학자들뿐만 아니라, 지난 2천년동안 줄기차게 유대교 학자들과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이 아주 중요한 방법론이다. 심지어 구약성서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인용하였던 성서기자의 방법도 상호본문성이라는 방법론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언급할 수 있는 ‘상호본문성’의 방법들로는

- 1) 직접 혹은 간접 인용구(citation)- 구약에 인용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갖는 방법
- 2) 암시문(allusion)- 구약에 암시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갖는 방법
- 3) 반향(echoes)- 구약에 반영되어 있는 것에 관심을 갖는 방법
- 4) 석의(paraphrase)- 구약을 해석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갖는 방법
- 5) 짜깁기(weaving)- 구약을 재구성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갖는 방법
- 6) 유사구조(structure)- 근동의 이야기가 구약과 유사한 것에 관심을 갖는 방법

등을 가지고 구약성서의 상호 연관성을 연구할 수 있다. 즉 상호본문성이란 주어진 본문을 생산하고 수용함에 있어서 성서기자가 다른 본문의 지식에 의존하는 모든 방식들을 포괄하기 위한 방법이다. 곧 본문에 나타난 주제는 성서 전체와 연결되는데, 이를 통해서 성서 전체의 주제를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주권이나, 구원, 창조, 죄, 심판, 예언, 회개,

8) 왕대일, “동양적 영성과 유대적 영성, 성서신학적 토론-시무언(是無言) 이용도의 생애와 신앙을 중심으로-”, 『신학과세계: 박창건 교수 은퇴 기념호』 43 (2001), 17-48.

9) 김덕중 외, 『구약성서의 경건, 구약성경의 영성』, 왕대일 박사 회갑 기념 헌정 논문집 (서울: KMC, 2014).

언약,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하나님의 나라, 종말 등등 수많은 주제들이 구약 성서 전체 속에서 서로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주제와 관련하여 구약성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찾아야 한다.

예를 들면, 이런 방법론으로 왕대일은 아가서 석의를 통해서 단순히 본문을 하나씩 나누어서 차례대로 주석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시문이 반복 대구로 이어지는 단순한 방식을 주목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 글말이 대화 속에서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¹⁰⁾고 지적한다. 곧 친구들의 말을 여자가 받고, 여자가 한 말을 남자들이 받아서 이어가는 형식이다.

또한 롤프 크니림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본문을 상황과 연결을 짓는 작업을 수행하였다.¹¹⁾ 이것을 체계적인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 그림에서 보여 주듯이 구약성서 본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적어도 본문의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본문의 문학적 상황에 대한 연구도 아주 기초적이며 필수적이다.

롤프 크니림의 연구는 성서학자들이 단순히 석의하는 작업으로 단순히 구약성서의 본문을 분석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을 청산하고, 본문 분석의

10) 왕대일, “우리가 부를 사랑의 노래,” 『아가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두란노 HOW 주석 22 (서울: 두란노, 2007), 111.

11) 롤프 크니림 저, 강성열 역, 『구약신학의 과제 I, II』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1; 2002).

결과를 상황에 연결을 지음으로써 신학화하는 작업을 전개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그 상황에 맞게 체계화된 신학적 결과를 오늘의 현대적인 상황에 해석학적으로 적용하는 차원에 까지 도달한 것이 큰 특징이다. 이것을 도식화하면 위의 그림을 기초로 다른 양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이 점에서 왕대일의 구약성서 연구가 추구하는 것도 그의 스승과 마찬가지로 본문과 공동체의 상황 사이에서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상호 대화를 한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그동안의 성서 연구는 두 극단을 취하고 있다. 역사비평방법을 이용하여 구약성서 본문에 처음 역사와 후기 첨가를 구분한 다든지, 아니면 구약성서 본문이 말하는 시대보다는 후기 편집 시대의 정황을 찾아내려는 시도로 인하여 본문의 공시적인 측면이 무시되든지 하였다. 반면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구약성서 본문에 대한 공시적인 면을 강조하면서도, 구약성서의 본문이 문학적 형태로 옷을 입고 내려온 유구한 역사를 통해 전승된 것을 해석함으로써 이루어 온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최종적인 문자의 형태만을 중시하는 것으로 고착되곤 하였다. 그러나 왕대일의 연구에서는 구약성서 문학이 지닌 공시적인 면과 통시적인 면을 모두 고려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기에 그의 본문 석의는 반드시 신학적 결과를 중시하고, 그 신학적 내용은 삶의 문제에 연결되어 적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항목을 달리하여 왕대일이 추구한 구약성서 석의와 관련하여 그 다양성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의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3. 문화비평

구약성서를 연구하는 이들은 누구나 구약성서에 관한 석의와 관련된 가능한 모든 수단들과 방법들을 동원해야 한다. 대부분은 구약성서와 관련된 이스라엘 역사와 종교에 관한 연구에서 유일신론적인 배경에서 출발하여 당대의 세속종교의 상황에 관하여 이분법적인 사고를 도출하면서 고대 이스라엘의 모든 분야에 적용시켰던 연구들이 과거의 방식이다.¹²⁾ 그러나 최근에 들어오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연구들은 전혀 새로운 현실을 소개한다.¹³⁾ 왕대일의 구약성서와 성에 관한 연구¹⁴⁾가 그중의 하나이다. 일상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종교라는 영역은 여성이 차지한 바가 크다는 것도 하나의 통찰이다.¹⁵⁾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에서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하면서도 종교적인 전승의 담지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여성이었다. 이미 언급이 나왔으니 좀 더 이 문제를 간단하나마 언급하자면, 구약성서의 성과 동성애에 관한 연구도 마틴 노트 이후에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게오르크 포오러는 아웨에게 여성적인 신성을 덧붙이려는 종교적인 혼합주의에 대한 고대 신앙의 복원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평가함으로써 다소 충격적인 주장을 한다.¹⁶⁾ 더 나아가서 존 브라이트는 이 시기에 “성창과 동성애를 포함한 이교의 식들이 자유롭게 성행하였다”¹⁷⁾라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일찍이 마틴 노트

12) 가장 대표적인 것이 Gösta W. Ahlström, *Aspects of Syncretism in Israelite Religion* (MLUND: C.W.K. Gleerup, 1963); idem, *The History of Ancient Palestin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이다.

13) Ziony Zevit, *The Religions of Ancient Israel: A Synthesis of Parallaxic Approaches* (New York: Continuum, 2001); 라이너 알베르츠, 『이스라엘 종교사 I』, 강성열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강성열 『고대근동세계와 이스라엘종교』 (서울: 한들출판사, 2003)을 보라.

14) 왕대일 편, 『구약성서와 성(性)』 (서울: 감신대 성서학연구소, 2000).

15) Carol Meyers, *Households and Holiness: The Religious Culture of Israelite Women*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5).

16) 게오르크 포오러, 『이스라엘 역사』, 방석중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6), 175.

17) 존 브라이트, 『이스라엘 역사』,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3), 327.

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대와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가 신명기역사가의 기록이라고 간주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오히려 “신명기역사가 각 왕들을 인물 자체 또는 그들의 역사적 중요성을 따라 평가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¹⁸⁾ 라고 주장한다. 이런 다양한 주장들 속에서 왕대일의 구약성서 연구는 대안적인 차원에서 차분하게 진행된다.

왕대일의 해석을 주석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이미 위에 항목을 달리하여 언급한 상호본문성과 본문에 대한 상황적 분석 방법에 기초하여, 왕대일이 구약성서의 비평방법들을 통해 상황과 현재의 포스트 모던적 상황 사이에서 주어지는 의미를 살펴보고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와 연결 짓고자 한다. 참고로 왕대일의 성서비평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비평하기 보다는, 당대에 기록된 성서의 배경사적인 내용들을 들추어 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편리한 성서연구방법론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다.

왕대일의 자료비평은 먼저 구약성서의 본문을 분석하고자 하는 자료를 찾는다. 그 후에 각 자료가 독특하게 보여주는 기록배경과 문체를 연구한다. 그가 자료를 찾는 방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구하고자 하는 구약성서의 본문과 문체와 어휘의 다양성, 모순과 불일치점, 문맥의 연속성을 깨뜨리는 단절, 중복과 반복 등을 살펴보면서 자료 층을 찾는다. 그리고 자료별로 그 특징을 구분하여 연구한다. 그에 의하면, 자료비평은 성서의 최종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본문의 자료가 되는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다. 성서 본문 이전의 자료를 해석하므로 더 오래된 배경에서 나온 더 원래적인 메시지를 찾을 수도 있다. 만일 성서기자가 자료를 올바르게 편집하지 못했다면 자료비평은 성서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돕는 해석법이 된다. 또한 자료비평은 성서의 편집과정을 알려줌으로써 성서해석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자료비평에는 몇 가지 문제도 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서 최종 본문의 권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구약성서의 권위를 떨어뜨리게

18) 마틴 노트, 『이스라엘 역사』,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6), 301.

되며, 자료비평의 결론이 반드시 옳다는 증거도 부족하다.

왕대일은 그의 스승인 롤프 크니림이 오경연구의 대가인 것처럼, 그 자신도 평생을 오경연구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면서 그는 민수기를 주석하면서도 오경의 틀에서 해석한다.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그가 토라 속에서 민수기를 재발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창세기를 제외하고 출애굽기부터 신명기를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첫 번째 이야기는 애굽으로부터 시내산까지의 이야기(출 1:1-민 10:10)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시내산으로부터 모압까지의 이야기(민 10:11-신 34:12)이다.¹⁹⁾ 그에 의하면, 이 두 이야기의 분기점이 민수기이다. 이 점에서 민수기를 전체 토라의 흐름 속에서 주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왕대일의 전승비평은 어떤 전승이 다음세대로 계속 전달되어 한 집단이나 공동체의 삶과 관습 그리고 경험 모두를 포함하는 것을 연구한다. 특별히 전승비평은 언어전승 곧 말과 기록의 형태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말과 문서를 뜻하는 좁은 의미를 가진다. 전승은 필연적으로 그 전달 과정에서 변화하고 발전한다. 전승이 전달 과정에서 변화하는 정도는 몇 가지 요인에 따라 다르다. 전승을 전달하는 사람들의 흥미와 관심을 끄는 살아있는 과정에 있어서, 전승의 전달에 관한 유일한 법칙은 전승은 항상 변화한다는 것이다. 전승이 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전승의 기록과정이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어떤 권위에 의한 신빙성에 달려 있다. 따라서 전승비평은 전승의 담지자들이 충실하게 전승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중시한다. 그러나 전승 층이 다양하고 중복되는 경우에 어느 전승이 원래의 것이고 어느 전승이 후대의 것인지 구분하기가 불분명하기에 전승비평을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왕대일의 신명기 강해는 단순히 신명기에 머물지 않고, “다시 듣는 토라”로 그 율림이 모세를 넘어서²⁰⁾, 요시아,²¹⁾ 에스라,²²⁾ 예수 그리스도,²³⁾ 사도

19) 왕대일, “민수기의 두 가지 형식, 이야기와 법,” 『민수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두란노 HOW주석 4 (서울: 두란노, 2009), 75.

20) 왕대일 『왕대일 교수의 신명기 강의: 신명기,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 (서울: 대한기독교서

바울²⁴⁾에게로 광범위한 영역으로 그 전승이 확대되어 나간다. 이것은 그의 창의력을 넘어서 기독교 영성의 깊이를 독자들에게 일깨우는 아주 열정적인 모습이다. 왜 이스라엘이 책의 종교라는 별명에 합당한 민족일까? 그는 모세의 글이 책이 되고, 그 책이 토라가 되어, 오고 오는 세대에 전승되면서²⁵⁾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한다.

궁겔은 문헌비평 방법대신 양식비평을 사용함으로 방법론적인 혁명을 이루었다. 룰프 크니림은 궁겔 이후에 양식비평의 대가로 그 이름을 올렸는데, 왕대일의 양식비평은 성서 본문이 기록되기 이전에 그 내용이 말로 전해 지던 구전과정에서는 본문이 어떤 모습이었으며,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찾는다. 구약성서의 본문이 그전 단계에서 가졌던 의미를 찾는 이유는 그것이 더 원래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양식비평은 구전 단계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책의 해석에 사용된다. 이 해석법을 양식비평이라고 하는 이유는 구전단계의 본문과 그 삶의 자리와 의도를 찾는 방법이 구전되던 이야기의 양식을 연구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표현에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특정 양식이 사용되는데, 그 양식은 독특한 삶의 자리를 가진다. 그리고 각 표현은 삶의 자리에 따라 독특한 의도를 가진다. 그러므로 본문의 양식을 연구하면 그 양식을 통해 삶의 자리와 그에 따른 본문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양식비평은 먼저 양식을 발견하고, 다음으로 그 양식이 처한 삶의 자리를 찾으며, 마지막으로 그 양식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본다.

왕대일의 양식비평은 새 패러다임을 추구하면서 구조라는 용어를 구조주의에서 뿐만 아니라, 양식비평과 수사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찾아낸다.²⁶⁾ 이점에서 그의 양식비평은 구약성서에 기록된 본문의 역사적인

회, 2011), 15-16.

21) 위의 책, 17-19.

22) 위의 책, 20-23.

23) 위의 책, 29-32.

24) 위의 책, 33-38.

25) 왕대일, “모세의 부탁,” 『신명이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두란노 HOW주석 5 (서울: 두란노, 2008), 532-533.

원래 상황을 찾아 그 원래의 의미를 새롭게 찾으려고 하는 장점이 있다. 다양한 삶의 자리를 고려하여 그에 따른 메시지를 찾으므로 본문에서 풍성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 혹시 그 삶의 자리가 역사적으로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삶의 자리라면 그런 메시지였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은 본문을 현실의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와 반대로 문제 점도 있다. 양식비평은 성서의 최종 본문이 가지고 있는 문맥은 무시하고 그 이야기가 말해진 구전 단계의 상황만을 중시하므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는 무시된다는 약점이 있다. 성서의 최종 본문은 그 자체로서 완결된 책이며, 완성된 구조 안에서 문학적 힘을 지닌다. 하지만 양식비평은 최종 본문을 무시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성서가 문학적인 구조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와 힘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으므로, 메시지가 주는 독특한 감동을 놓치지 않으려고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 종교와 역사의 가장 번성기인 10세기의 유다 지역 연구와 관련하여²⁷⁾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정보는 성서가 전부리는 점을 여러 학자들이 중시하지만, 다윗과 솔로몬의 시에 대해 왕대일은 구약성서의 시편을 읽는 독법으로 두 가지를 소개한다. 하나는 시편의 시를 유형별로 묶어서 이해하려는 시도와 다른 하나는 시편의 시가 전해진 상황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파악하려는 시도이다.²⁸⁾ 이는 전형적으로 구약성서를 경전으로 중시하면서 다루는 그의 양식비평의 특징이다. 창세기와 관련한 그의 연구는 문화비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²⁹⁾

26) 왕대일, 『구약주석 새로 보기』 (서울: 감신대성서학연구소, 2005), 175-212.

27) David W. Jamieson-Drake, *Scribes and Schools in Monarchic Judah: A Socio-Archaeological Approach* (Sheffield: Almond Press, 1991).

28) 왕대일, 『시편사색, 시편 한 권으로 읽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의 제2장을 보라. 전통적으로 시편을 탄원시, 찬양시, 감사시, 제왕시 같은 유형에 따라서 읽지 않고, 왕대일은 시편을 다섯 마당으로 짜인 한 권의 책이라는 매무새를 깊이 헤아리면서 읽는다.

29) 이와 관련하여 2009년 10월에 유성에서 열린 한국기독교학회 제38차 정기학술대회에서 왕대일은 “성서로 본 문화, 성경의 눈으로 읽는 문화-구약을 중심으로”를 발표하여 신선한 관심을 모았다. “문화를 특정 영역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삶의 한 방식으로 간주해야 하고, 문화현상보다는 문화의 실재를 바라봐야 한다.”고 서두를 연 그는 “문화는 ① 경작의

왕대일은 경작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 28절의 ‘문화명령(cultural mandate)’이 ‘땅을 정복하라’에서 ‘땅을 경작하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 구문은 정복과 지배의 의미가 아닌 다스림이나 청지기직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땅을 경작하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고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문화를 통해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손발로 구현되어야 함이 내포돼 있다”고 설명한다. 소통에 대해서는 “창조신앙이 고발하는 혼돈이란 소통이 없는 상태인 반면, 창조된 시간과 공간의 질서는 소통하는 상태”라고 밝히고, “구약성서에서 문학적 소통은 단순히 특정 주장을 일방적으로 나르는 수단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자신의 처지에서 대담하게 심화시키도록 돕는다.”고 전한다.³⁰⁾

문화가 구원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는 “창세기 4장처럼 문화와 문명의 진보에 새겨진 목소리가 죽음을 부르는 소리였다는 점은 역설적”이라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 이룬 학문과 예술은 폭력의 실천”이라고 잘라 말한다. 창세기 3-11장에서 문화가 자연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뿌리내리는 과정을 보여주지만, 여기서 사람의 손으로 기꺼지는 문화가 사람의 욕망과 쾌락과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는 과정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변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학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인식(見)에 기초한 진단에 그치지 않고 존재해야 할 당위를 선언(觀)해야 한다.”며 “해석이란 보이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하는 작업”이라고 밝힌다.³¹⁾

대상이자 ② 소통의 수단이며, ③ 구원받아야 하고 ④ 변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서는 문화의 옷을 입은 텍스트(inculturated texts)이고, 그렇다면 성서해석학은 문화비평이 된다.”며 “이때 기억할 것은 성서본문의 의미가 다의적이라는 사실인데, 이는 각 본문이 삶의 자리로 삼는 정황이 문화의 구현(embodiment)일 수도 있고 비평(critique)일 수도 있으며,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component)이거나 문화를 이루는 원천(source)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고 설명했다.

30) 왕대일의 강연 자료집인 “성서로 본 문화, 성경의 눈으로 읽는 문화-구약을 중심으로”에서 인용함.

31) 위의 강연 자료집에서 인용함.

4. 공시적이면서 통시적 연구

왕대일의 또 한 분의 스승인 클레어먼트의 제임스 샌더스(James Sanders)는 본문을 형성한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구약성서 연구에서 다음 두 가지 단계를 제시한다. 하나는 본문을 다루는데 있어서 역사비평이 유효함을 주시하며, 다른 하나는 성서해석에 있어서 본문을 형성하는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왕대일의 연구에서는 제임스 샌더스의 정경해석 방법³²⁾을 두 가지 면에서 모두 적용하려고 한다. 곧 통시적인 방법과 공시적인 방법으로³³⁾ 본문을 다루려고 한다는 사실이다.

왕대일의 편집비평은 성서기자가 여러 자료를 편집하여 신앙 공동체를

32) James A. Sanders, *Torah and Canon* (Philadelphia: Fortress, 1972); idem, *Canon and Community: A Guide to Canonical Criticism* (Philadelphia: Fortress, 1984); idem, *From Sacred Story to Sacred Text* (Philadelphia: Fortress, 1987).

33) 현대의 문헌연구에서 공시적인 읽기는 우리에게 전달된 최종 형태인 본문의 구조를 정의하고 서술하는 목표를 가진 접근방법이고, 통시적인 방법은 본문의 편집 역사의 정의와 서술을 목표로 하는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Jacob Hoftijzer, "Holistic or Compositional Approach?: Linguistic Remarks to the Problem," in *Synchronic or Diachronic?: Debate on Method in Old Testament Exegesis*, ed. J. C. de Moor (Leiden: Brill, 1995), 98. 통시적인 방법과 공시적인 방법의 구분은 소시르(F. de Saussure) 로 부터 시작 되었는데, 그는 *parole*와 *langue*를 구분하였다. 사실상, 소시르는 *parole* 보다는 *langue*를 우선으로 여겼다. 최근에 두 가지 방법은 서로 보완된다고 여겨졌다. James Barr, "The Synchronic, the Diachronic and the Historical: A Triangle Relationship," in *Synchronic or Diachronic?: Debate on Method in Old Testament Exegesis*, ed. J. C. de Moor (Leiden: Brill, 1995), 1-14. 벨린(A. Berlin)은 수평적인 역사의 축(통시적)에서 본문의 전역사와 후역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평 구조적인 축(공시적)에서 초역사적인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Poetics and Interpretation of Biblical Narrative* (Sheffield: Almond Press, 1983), 111. 통시적인 방법과 공시적인 연구는 역사적 문헌적인 방법으로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참고, D. J. A. Clines and J. Ch. Exum, "The New Literary Criticism," in *The New Literary Criticism and the Hebrew Bible*, JSOTS 143 (Sheffield: JSOT Press, 1993), 11-25; E. Talstra, *Solomon's Prayer: Synchrony and Diachrony in the Composition of 1 Kings 8:14-61* (Kampen, 1993), 81-82. 공시적이고 역사적인 성서본문 읽기에 대한 논의는 더 포괄적이고 편견이 없어야 한다. 두 방법은 택일할 방법들이 아니고, 본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조화롭게 연결해야 하는 방법들이다. 참고, R. Rendtorff, *Directions in Pentateuchal Studies*, CR: BS 5 (1997), 58.

위해 최종 본문을 썼다고 간주하기에, 편집 곧 신학적 의도를 넘어서 언제나 새로운 구약주석을 찾는 해석법이다. 양식비평은 성서기자를 단순히 여러 자료를 모아 놓은 수집가 정도로 보지만, 편집비평은 최종 본문을 기록한 성서기자의 역할을 강조하여, 성서기자가 단순히 자료만 수집하여 나열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신학적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쓴 것으로 본다. 그래서 본문을 해석할 때 최종 본문을 쓴 성서기자의 의도를 찾는 것이다. 곧 성서기자가 어떤 자료를 선정하여, 어떻게 변경했는지, 그리고 그 자료를 어떤 순서로 배열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하지만 편집비평은 자료를 정확히 알아야 성서기자가 어떻게 편집하였는지 알 수 있다는 전제가 요구된다. 만일 자료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성서기자의 편집의도를 알 수 없게 된다. 또한 편집비평은 주로 변경된 것을 보고 성서기자의 의도를 파악하지만, 변경되지 않은 부분들도 여전히 성서기자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왕대일의 사회학적 비평도 사회과학적인 이론이나 모델의 연구를 통해 새롭게 본문의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본문이 그 원래적인 상황에서 보여주는 의미를 찾는 연구방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본문의 바른 해석은 원래 상황에서 의 의미를 찾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원래의 상황을 모르고 해석한다면 시대착오적 읽기를 통해 독자가 자기의 생각대로 본문을 해석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서해석자들이 본문의 원래적 상황을 찾는데 관심을 가지게 된다. 먼저 성서본문을 해석하기 위해 사회학적 이론과 모델을 찾거나 본문이 기록된 상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는 것을 토대로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게 된다. 사회비평은 성서의 배경을 잘 파악하여, 본문의 내용을 보다 정확히 해석하도록 도와주는 장점이 있다. 또한 다른 여러 가지 해석법들을 보완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현대에 살고 있는 학자들이 그 시대의 배경을 바르게 설명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특정 본문을 해석하는데 적합한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왕대일은 사회학적 접근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인류학적 해석”³⁴⁾

도 제안한다. 예를 들면, 그는 레위기의 정결법(청정법)을 사회적·경제적 기능이 있음을 찾아내면서 당시의 정, 부정이 차지하는 사회적 체계가 있다고 고발한다. 그가 보기에 부정에 대한 사회 인류학적 연구가 레위기를 해석하는 일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³⁵⁾

왕대일의 수사비평은 본문의 수사학적 특징에 맞춰 본문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수사학이란 말을 통해 청중을 설득하는 이론과 기술을 의미한다. 어느 글에나 수사학적 특징이 있겠지만, 구약성서는 특히 수사학적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다. 구약성서가 쓰인 배경이 수사학의 세계였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문학비평의 발달과 더불어 수사학적 해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수사비평이 주로 다루는 것은 연설이다. 그러므로 수사비평은 구약성서 중 오경 연구, 특히 신명기사가의 연구에 많이 이용된다.

당대의 독자가 처한 상황과 역할에 근거를 둔 수사학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심의적 수사학은 청중이 미래에 어떤 행동을 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쓰인다. 이 수사학은 공공집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정치적 연설에 쓰인다. 여기서는 과거의 유사한 것을 빗대어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고 주장하는 예증법이 중요한 설득 수단이 된다. 법정적 수사학은 과거의 사건에 대해 그 옳고 그름을 증명하고 청중이 그에 따라 판단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것이다. 이 수사학은 법정에서 누군가를 기소하거나 변호하는 데 쓰인다. 여기서는 확실한 것을 전제로 하여 불확실한 것을 추론해 내는 논증법이 효과적인 설득 수단이다. 제의적 수사학은 청중이 현재의 태도를 견지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의 일을 즐기는 것으로서 과장법이 효과적인 설득 수단이다.

왕대일의 수사학적 성서해석은 좀 더 간결하게 이상의 수사학의 고전적 전통을 정리해주고 있으며, 수사학이 지닌 구성의 예술과 설득의 기교를 보여주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수사학적 해석이 지닌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해

34) 왕대일, “정, 부정에 대한 가르침과 그 적용,” 레위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두란노 HOW 주석 3 (서울: 두란노, 2009), 114-115.

35) 위의 책, 115.

주고 있다.³⁶⁾ 수사비평은 당대의 수사학을 이용하므로 역사비평적 성격도 가지고 있고 문학적 특징을 많이 고려하므로 문학비평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성서학 분야에서 공시적 문학으로 눈을 돌리도록 했던 대표적인 학자는 제임스 뮈일렌버그(James Muilenburg)이다. 그가 1974년에 발표했던 연설의 요지는, 성서를 ‘자료’가 아닌 ‘문학’으로 보자는 것이었다. 왕대일에 의하면, “성서 본문이 말과 글을 층별로 쌓아 놓은 단순한 수집물이 아니라 문학적, 예술적으로 이루어진 ‘구조물’로 보자”³⁷⁾는 것이다.

왕대일의 연구는 구약성서 본문에 대한 주석을 통하여 “성서해석학적 열매를 어떻게 활용하며, 그것이 어떻게 설교를 ‘낳게 하는’ 작업”³⁸⁾인지를 보여주려는데 관심이 많았다. 이런 그의 관심은 많은 설교를 위한 주석 작업을 ‘공시적’³⁹⁾이면서도 동시에 ‘통시적’⁴⁰⁾으로 구약주석을 새롭게 조명하려

36) 왕대일, 『구약주석 새로 보기』, 155-174.

37) 왕대일, 『새로운 구약주석: 이론과 실제』 (서울: 성서연구사, 2000), 125.

38) 왕대일, 『구약주석 새로 보기』, 5.

39) 위의 책, 143-154. 공시적인 연구는 본문의 문학적 구조를 중요한 요소로 이해한다.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한다는 말은 본문의 문학적 구조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다. 본문 전체의 통일성은 부분적인 단락들의 모음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본문은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작은 단락의 의미를 찾으며, 작은 단락은 전체와의 관련성과 작은 단락간의 관계를 통하여 각 책의 전체를 통전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매 단락을 연구할 때마다 전체와의 관계를 상기하며 신학적인 의미를 전체성 안에서 발견할 것이다. 공시적인 면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문자주의적인 통일성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본문의 통일성을 전제할 때 다양한 시대에 문헌의 편집의 역사를 무시하지 않는다. 본문에 담긴 다양한 시대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통일성을 받아 들였던 공동체의 해석을 살핀다. 이질적인 요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본문을 통일적인 문학적 구조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통일성에 대한 불일치를 유발하는 요소들은 공동체의 위기와 대응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이해할 것이다.

40) 위의 책, 243-250. 통시적인 연구는 본문 안에서 역사적인 정황을 이해하거나 본문의 문헌의 역사를 통하여 공동체의 정황을 읽는 것이다. 해석을 통해 문헌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본문이해의 깊이를 더해주지만, 이 해석을 통하여 후기의 공동체의 삶의 정황을 재건하는 것은 주관적으로 치우칠 위험이 있기에 지양한다. 최초의 전승으로부터 최종 본문에 이르기까지 본문을 풍요롭게 만든 모든 해석에 대한 권위는, 본문 이후의 공동체에게 환원하지 않고 최초의 전승에 부여한다. 당대의 역사적인 상황에서부터 최종 본문에

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그의 많은 구약성서 연구 결과물들이 입증해주고 있다.

왕대일은 하나님의 계시의 궁극적인 권위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종 본문 안에 있다고 보고 최종 본문의 통일성을 전제한다. 최종본문을 다루기 위해 정경해석방법을 사용하여 통시적인 측면인 공동체와 공시적인 측면인 본문의 상호관계를 중요시 여긴다. 우선적으로 본문의 문화적인 구조를 계시의 중심으로 보지만, 문자주의적인 방법에 머물지 않는다. 그 본문이 허락하는 한도 안에서 역사비평 방법의 순기능을 사용하여 역사 속에 담긴 공동체의 역동성을 밝힌다.

이러한 왕대일의 성서연구방법을 통한 왕대일의 석의 작업들은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비평하려는 의도가 목적이 아니라, 다만 3000년이란 시공간의 차이를 극복하여 성서기자를 당대의 상황 속에서 더듬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효과적으로 찾으려는 학자의 열정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석과 설교에 관한 그의 관심을 방법론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의 연구가 지닌 의의를 독자들에게 어느 정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의 구약성서에 관한 연구는 단순히 방법론에 의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의 항목에서 그의 연구가 지닌 의의를 영성과 깨달음의 차원에서 좀 더 다루고자 한다.

5. 기독교 경학과의 만남

왕대일이 추구한 구약주석과 신학적 석의방법은 교리적 성서신학운동의 종결과 관계있다.⁴¹⁾ 단순히 구약본문을 신학화하여 교단이 추구하는 교리적

이르기까지 공동체의 정체성과 사명이라는 면에서 본문은 동일성을 제공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본문의 해석을 위하여 후기 공동체의 정황을 재건하지 않는다. 만약 후기 공동체의 정황이 밝혀진다면 이는 원래 본문의 해석을 풍요롭게 하는데 사용된다.

41) 이른바 성서신학운동은 야누스의 얼굴과 같다. 자세한 것은 Steven J. Kraftchick, "Facing Janus: Reviewing the Biblical Theology Movement," in *Biblical Theology*, ed.

기초를 놓으려는 움직임은 과거에 학자들에 의하여 수차례 진행되어 왔다.⁴²⁾ 단순히 이념이나 신학 사조에 입각한 구약성서 해석보다는, 왕대일의 구약성서 주석은 기독교 영성의 깊이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숨씨보다는 그 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한”⁴³⁾ 것이다.

왕대일의 구약성서 해석은 서구인들과는 다르게 기독교 경학(經學)을 통해서 한국인이면 고유하게 구약성서를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관심으로 나아간다. 지금까지 성서해석은 해석의 과학, 사회학, 미학에 머물러 있었다. 이제 성서해석은 신학의 지경을 되찾아야 한다. 성경해석을 신학의 자리에 되돌려 주려는 노력은 경학으로서의 성서해석에서 찾을 수 있다. 논어, 맹자, 중용 대학 등과 같은 동양의 고전을 읽는 독법인 경학은 한편에서는 경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독법이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경전을 해석하는 사람을 빚어기는 물레이다. 기독교도서학술상까지 받음으로써 그 가치가 입증된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인 『기독교 경학과 한국인』을 위한 성경해석: 경학으로서의 성서해석』(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을 통해 저자는 성경해석을 역사적 지식이나 종교적 정보를 얻는 것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에 의하면, 성서연구는 경학의 맥락에서 수렴하는 말씀읽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삶 속으로, 문화 속으로, 역사 속으로 실천해 가는 수행 작업이다. 이 점에서 특별히 경학은 한국 학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

Steven J. Kraftchick. et al. (Nashville: Abingdon, 1995), 54-77을 참고하라.

42) 성서신학에 기초를 놓으려는 작업이 단순한 교리 신학을 체계화하려는 과거의 움직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다음 글들을 참조하라. James Barr, “The Theological Case against Biblical Theology,” in *Canon, Theology, and Old Testament Interpretation: Essays in honor of Brevard S. Childs*, ed. G. M. Tucker, et al. (Philadelphia: Fortress, 1988), 3-19. Brevard S. Childs, *Biblical Theology in Crisis* (Philadelphia: Westminster, 1970).

43) 왕대일, 『창조신앙의 복음, 창조신앙의 영성』(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6)의 머리말에 나오는 깊은 통찰력이다.

하나님을 즐기게 해준다. 그의 책은 우리가 왜 경학에 주목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기독교 경학의 지평으로 뻗어나가 성서기자의 의도나 독자가 찾은 의미로의 성서가 아니라 말씀에 새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지를 안내한다.⁴⁴⁾ 더 나아가서 그는 심지어 마이스터 에크하르트(Meister Eckhart)와 도덕경을 비롯한 동서양의 고전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새로운 깨달음을 중시한다, 예를 들면, 그는 다음과 같이 강렬한 메시지를 전한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 되어야 합니다.⁴⁵⁾

왕대일의 이런 메시지는 다석 유명모를 인용하면서 “사람이란 본디 하늘을 항상 우러러보면서 땅의 것을 거느려야 합니다.”⁴⁶⁾라는 통찰로 이어진다. 이것은 소위 ‘상존참하술(常尊瞻下率)’로 일찍이 다산이 다음과 같이 한 말이다.

항상 높이 쳐다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참망은 우러러 쳐다본다는 것이고, 참모는 우러러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능히 하나님을 우러러보기 때문에 사람 노릇을 합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사람입니다. 늘 영원을 참망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몸뚱이를 거느리고 가는 것이, 생각을 거느리고 가는 것이, 세계를 거느리고 가는 것이 하술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연입니다.⁴⁷⁾

44) 왕대일, 『기독교 경학과 한국인을 위한 성경해석: 경학으로서의 성서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에서 제5장 “경학(經學)과 역사비평”을 주목하라.

45) 이러한 메시지는 왕대일, 『창조신앙의 복음, 창조신앙의 영성』, 122-145에서 제6장의 제목이 되기도 하다. 이 제목은 사실 에크하르트가 한 말인데, 왕대일은 에크하르트를 인용하면서 “영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말한다. 에크하르트에게 영혼은 ‘세상’인데, 영혼을 하나님을 위한 넉넉한 공간, 곧 하늘 자체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왕대일은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늘이 되어야만 한다.”고 말한다. 참고, 위의 책, 304, 각주 1번.

46) 위의 책, 134.

47) 위의 책, 134에서 재인용. 참고, 다석학회 엮음, 『다석 강의』 (서울: 현암사, 2006), 619.

왕대일의 이러한 철저한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인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인의 후예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하늘을 우러러 보기보다는 땅을 내려다보면서 거기에 매이는 삶, 곧 거꾸로 살다가 허무하게 죽고 마는 인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왕대일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인 에녹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노아 안에서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노아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노아 속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터가 노아가 땀 흘리는 터가 되고, 노아가 땀 흘리는 터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터가 되었습니다.”⁴⁸⁾라고 선언한다. 이러한 선언은 이미 아타나사우스가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⁴⁹⁾라고 벌써 한 말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기독교 영성의 깊이로 들어가면 누구에게나 회자될 수 있는 말이기도 한다. 이 점에서 왕대일은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기독교 영성의 깊이로 구약성서를 주석해내는 새로운 깨달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왕대일은 유대교의 유일신신앙에서 기독교의 삼위일체신앙을 찾아 나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직신학자가 아니라 성서신학자이기에 “모달리즘이 유일신신앙의 지평에서 삼위일체를 해설하는 마스터키는 아니다.”라고 선언하면서 “삼위일체신앙은 유일신신앙의 변형이

48) 왕대일 『창조신앙의 복음, 창조신앙의 영성』, 217. 이러한 선언은 에크하르트트의 “하느님이 그대 안에서 하느님 되게 하라.”는 선언과 아주 유사하다. 위의 책, 310, 각주 21. 참고, 매튜 폭스 헤제 주석·마이스터 에크하르트, 『마이스터 액카르트 설교: 마이스터 액카르트는 이렇게 말했다. 대지를 품어 안은 액카르트트의 영성』, 김순현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2006), 300.

49) 왕대일 『창조신앙의 복음, 창조신앙의 영성』, 289. “이것은 아타나사우스가 그의 ‘성육신론’ 54:3에서 한 말이다. 그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를 인간으로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동방교회의 하나님 이해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을 닮아 간다는 뜻이다. 존 웨슬 리가 주창한 성화의 뿌리도 이에 닿아 있다. 참고, 호서대 고증세문헌연구소·염창선 편역, 『아타나시오스의 부활절 편지』 (안산: 인문과 고전, 2009), 10-19. 위의 책 313-314, 각주 22에서 재인용.

다. 그렇지만 구약의 유일신신앙의 속내는 하나님에게 배타적인 지위를 부여했기에, 삼위일체신앙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른다.(요 14:2) 그럼에도 예수는 사람처럼 태어난 분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주후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성령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정립되면서 유일신 하나님 야웨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기독교 신앙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모노테이즘이 트리니티의 옷을 입은 것이다⁵⁰⁾라고 이어간다. 이런 선언은 신약성서를 공부하는 필자에게는 아주 감명 깊은 한 줄기 선명한 빛과 같다. 흔히 신약의 빛에서 구약을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왕대일의 이해에 의하면 구약의 유일신신앙이 신약의 삼위일체신앙으로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유대교가 기독교의 모태가 된다는 것이. 이러한 왕대일의 유일신신앙과 연관을 짓는 삼위일체신앙은 역시 후학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면서 그의 기독교 영성이 지닌 깊이로 빛을 더해준다.

그러면 왕대일이 말하는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단지 인간의 자각인가? 그는 불교처럼 인간의 깨달음이 스스로에게서 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로 내려온다고 선언한다. 마지막으로 부연하자면, 그가 말하는 깨달음은 이런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오심을 깨닫는 영적인 감각입니다. 경건은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드러내는 영적인 창문입니다. 영성은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구현하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아! 영성은 깨달음입니다. 깨어짐입니다. 깨어남입니다.⁵¹⁾

이러한 깨달음은 그가 구약성서를 단순한 문학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을 일깨우는 신앙의 경전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대변한다.

50) 왕대일, 『구약신학』, 410-411.

51) 왕대일, 『창조신앙의 복음, 창조신앙의 영성』, 295.

6. 나가는 말

지금 한국교회는 영적인 중심을 잃어버려서 불의에 대해 저항할 줄도 모르고,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조차 잃어버려서 맛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다. 진정한 야성과 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가장들이 일터에서 내쫓기고, 길거리에 실업 청년들이 넘쳐나고, 가난에 내몰린 사람들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도, 교회는 울지 않는다. 파헤쳐진 산과 강, 그리고 그 속에 갇들어 살아가는 못 생명들이 신음을 해도 교회는 별 일 없다는 듯 평온하다. 그릇된 확신과 실천을 가지고 관념론적인 신학에 사로잡혀 있는 한국교회는 지중해 전체 교회를 향해서 성서기자가 말하는 우리 곧 ‘그리스도 공동체’의 삶과 구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계획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王大일은 한국교회의 영성이 되살아나기를 소망하면서 “말조심!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입술에 은혜가 있어야 한다.”⁵²⁾고 힘주어 말한다. 전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이다. 나라가 온통 시끄럽고, 교회가 세상에 휘둘리는 말만을 자꾸 쏟아내고, 신학교 교수들이 본연의 사명에서 벗어나 포퓰리즘과 자신들의 소견대로 이념에 이끌려 세상풍조에 떠다니는 상황에서 그의 영성을 깨우는 이러한 발언은 한국교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소망한다.

王大일은 교회가 성소를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떠난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출애굽기를 석의할 때, 다음과 같은 심정을 토로한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역사 일면도로만 헤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언약과 성막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떨어진 사건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⁵³⁾

52)王大일, “아굽의 타향살이와 귀향,” 『창세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두란노 HOW주석 1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1), 356.

53)王大일 『엑소도스, 하나님의 성소를 이루기까지:王大일의 출애굽기 강해』 (서울: 도서출판 KMC, 2015), 6.

그럼 출애굽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는 하나님의 성소를 이루기 위한 긴 여정으로 출애굽기를 석의한다. 이는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영성이다. 한국교회는 겉으로는 화려한 예배당을 간직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영혼의 성소를 잃어버린 빈껍데기와 같다. 물론 출애굽 당시에 성소 대신에 광야에는 성막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을 상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신다!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든지, 언제든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⁵⁴⁾라고 힘주어 고백한다. 이 점에서 한국교회는 출애굽기에서 새롭게 배워야 한다. 성소를 이루기까지 성막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을 때,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자체가 버림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왕대일의 영성에 관한 깨달음은 구약성서 석의 방법론에만 머물던 한국의 구약신학을 기독교 경학과 영성의 차원으로 한 단계 승화시킨 공로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평생 구약학자로서 학문을 중시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 제기되는 많은 문제들을 피하지 않고 온 몸으로 끌어안고서 고민한 한 학자의 고독한 길을 제대로 드러내고자 노력하였지만, 독자들이 보기에 짧은 지면 관계로 만족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줄로 안다. 시족을 달자면, 미흡한 부분은 본 연구가 말미에 달아 놓은 참고 문헌을 통하여 왕대일이 평생을 추구한 학문의 길을 직접 찾아서 참고해 주기를 바란다.

<표제어>

왕대일, 구약성서, 석의, 기독교 경학, 영성

<Keywords>

Daill Wang, the Old Testament, exegesis, the Christian study of Confucian classics, spirituality

* 접수일 2019년 2월 1일, 수정일 2019년 2월 25일, 게재 확정일 2019년 3월 20일

54) 위의 책, 278.

참고문헌

- 강성열, 『고대근동세계와 이스라엘종교』, 서울: 한들출판사, 2003.
- 게오르크 포오리, 『이스라엘 역사』, 방석종 역, 3판; 서울: 성광문화사, 1986.
- 김덕중 외, 『구약성서의 경건, 구약성경의 영성』, 왕대일 박사 회갑 기념 헌정 논문집, 서울: KMC, 2014.
- 다석학회 엮음, 『다석 강의』, 서울: 현암사, 2006.
- 마틴 노트, 『이스라엘 역사』,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6.
- 메튜 폭스 헤제 주석 ·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마이스터 엑카르트 설교: 마이스터 엑카르트는 이렇게 말했다. 대지를 품어안은 엑카르트의 영성』, 김순현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2006.
- 라이너 알베르츠, 『이스라엘 종교사 I』, 강성열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 롤프 크니림 저, 강성열 역, 『구약신학의 과제 I, II』,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1; 2002.
- 왕대일, 『구약신학』, 서울: 감신대성서학연구소, 2002; 2010년 개정판.
- _____, 『구약성서와 성(性)』, 서울: 감신대 성서학연구소, 2000.
- _____, 『구약성경의 종말론: ‘그 날’을 향한 소망』,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17.
- _____, 『구약주석 새로보기』, 서울: 감신대성서학연구소, 2005.
- _____, “우리가 부를 사랑의 노래,” 『아가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두란노 HOW 주석 22, 서울: 두란노, 2007.
- _____, “민수기의 두가지 형식, 이야기와 법,” 『민수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두란노 HOW 주석 04, 서울: 두란노, 2009.
- _____, 『왕대일 교수의 신명기 강의: 신명기,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 _____, “모세의 부탁,” 『신명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두란노 HOW주석 05, 서울: 두란노, 2008.
- _____, 『시편사색, 시편 한 권으로 읽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 _____, “정, 부정에 대한 가르침과 그 적용,” 『레위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두

- 란노 HOW 주석 03, 서울: 두란노, 2009.
- _____, 『새로운 구약주석: 이론과 실제』, 서울: 성서연구사, 2000.
- _____, 『창조신앙의 복음, 창조신앙의 영성』,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6.
- _____, “동양적 영성과 유대적 영성, 성서신학적 토론-시무언(是無言) 이용도의 생애와 신앙을 중심으로-”, 『신학과세계: 박창건 교수 은퇴 기념호』 43, (2001), 17-48.
- _____, “경학(經學)과 역사비평,” 『신학과세계』 72, (2011), 17-32.
- _____, “경학으로서의 성서해석,” 『매강류행렬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은혜로운 말씀, 생명과 평화의 길』 (2011), 187-204.
- _____, 『기독교 경학과 한국인을 위한 성경해석: 경학으로서의 성서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 _____, “야곱의 티향살이와 귀향,” 『창세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두란노 HOW주석 01,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1.
- _____, 『엑소도스, 하나님의 성소를 이루기까지: 왕대일의 출애굽기 강해』, 서울: 도서출판 KMC, 2015.
- 존 브라이트, 『이스라엘 역사』,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3.
- 호서대 고중세문헌연구소 · 염창선 편역, 『아타나시오스의 부활절 편지』, 안산: 인문과 고전, 2009.
- Ahlström, Gösta W., *Aspects of Syncretism in Israelite Religion*, MLUND: C.W.K. Gleerup, 1963.
- _____, *The History of Ancient Palestin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 Barr, James, “The Theological Case against Biblical Theology,” In *Canon, Theology, and Old Testament Interpretation: Essays in Honor of Brevard S. Childs*, eds., Gene M. Tucker et al., Philadelphia: Fortress, 1988, 3-19.
- _____, “The Synchronic, the Diachronic and the Historical: A Triangle Relationship,” In *Synchronic or Diachronic?: Debate on Method in Old Testament Exegesis*, ed. J. C. de Moor, Leiden: E. J. Brill, 1995, 1-14.
- Berlin, A., *Poetics and Interpretation of Biblical Narrative*, Sheffield: Almond

- Press, 1983.
- Childs, Brevard S., *Biblical Theology in Crisi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0.
- Clines, D. J. A. and Exum, J. Cheryl, "The New Literary Criticism," In *The New Literary Criticism and the Hebrew Bible*, JSOTS 143, Sheffield: JSOT Press, 1993, 11-25.
- Hoftijzer, Jacob, "Holistic or Compositional Approach?: Linguistic Remarks to the problem," *Synchronic or Diachronic?: Debate on Method in Old Testament Exegesis*, ed. J. C. de Moor, Leiden: E. J. Brill, 1995, 98-114.
- Jamieson-Drake, David W., *Scribes and Schools in Monarchic Judah: A Socio-Archeological Approach*, Sheffield: Almond Press, 1991.
- Kraftchick, Steven J., "Facing Janus: Reviewing the Biblical Theology Movement," In *Biblical Theology*, ed. Steven J. Kraftchick, et al., Nashville: Abingdon, 1995, 54-77.
- Meyers, Carol, *Households and Holiness: The Religious Culture of Israelite Women*,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5.
- Rendtorff, Rolf, "Directions in Pentateuchal Studies," *CR: BS* 5 (1997), 43-65.
- Sanders, E. P., *Paul and Palestinian Judaism: A Comparison of Patterns of Religion*, Minneapolis: Fortress, 1977.
- Sanders, James A., *Torah and Canon*, Philadelphia: Fortress, 1972.
- _____, *Canon and Community: A Guide to Canonical Criticism*, Philadelphia: Fortress, 1984.
- _____, *From Sacred Story to Sacred Text*, Philadelphia: Fortress, 1987.
- Talstra, E., *Solomon's Prayer: Synchrony and Diachrony in the Composition of 1 Kings 8:14-61*, Kampfen, 1993.
- Zevit, Ziony, *The Religions of Ancient Israel: A Synthesis of Parallactic Approaches*, New York: Continuum, 2001.

<초록>

왕대일 박사의 구약성서 석의에 관한 연구

소기천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본 논문은 왕대일박사의 은퇴기념 논문으로 그의 구약성서 연구에 나타난 석의를 살펴보고자 마련된 것이다. 그는 감신대에서 평생 동안 후학들을 가르쳐오면서 설교가로, 강해 주석가로, 학자로, 그리고 행정가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영적 지도자이다.

왕대일은 독일 학계에서 죄론(Hamartiologie) 신학의 전문가로 신학 사 전에까지 올라간 그 명성이 미국에 널리 알려져서 제임스 로빈슨(James M. Robinson)에 의해 클레어먼트 신학교(Claremont School of Theology)와 클레어먼트 대학교(Claremont Graduate University)로 초청되어 자리를 옮긴 롤프 크니립(Rolf Knierem)이 추구한 구약성서 해석방법에 힘입은 바가 크다. 본 연구는 크니립의 구약성서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인 상호 본문성을 통하여 본문과 상황을 연결하는 방법을 주목하고, 그가 한국 구약학계에 남긴 공헌을 되짚어 보면서 그의 연구내용을 간추리고, 더 나아가서 구약성서의 석의방법에 그가 남긴 업적을 새롭게 투영해봄으로써 향후 후학들에게 모범적인 석의과제의 길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먼저 상호본문성과 상황을 연결하는 석의 방법을 통하여 크니립의 연구를 발전시킨 왕대일이 그의 스승과 더불어서 공통적으로 제안한 본문과 상황을 조화롭게 연결한 방법들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이 후에 구약석의 방법론 가운데 몇 가지를 추려서 왕대일의 연구업적이 한국 구약학계에서 어떻게 치밀하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王大일의 구약연구는 단순히 구약성서 본문을 주석하고 분석하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구약신학을 체계화하는 작업으로 이어진다. 더 나아가서 그는 정교하게 기초를 놓은 그의 구약신학을 오늘의 당면 문제와 신앙에 적용한다. 그리고 그는 구약신학을 요청하는 이 시대의 당면 문제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유일신신앙을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신앙으로, 아울러 이 시대를 넘어서 오고 오는 시대를 관통하는 예언적 종말론으로 승화시킨다. 이런王大일의 관심은 기독교 경학과의 만남을 통하여 기독교 영성의 새로운 깊이에서 구약성서를 주석하는 경지로 더욱 더 나아간다.

<Abstract>

**A Study of the Old Testament Exegesis
by Dr. Tai-Il Wang**

Prof. Ky-Chun So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University)

This paper is prepared to search of the Old Testament exegesis by Dr. Tai-il Wang for his Festschrift. He is a preacher, a Biblical expositor, a scholar, and an administrator at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during the past decades as a spiritual leader.

He is owed by Rolf Knierim who was his teacher and searched many methodologies to the Old Testament interpretation. Rolf Knierim, who was a novice of the theology of Hamartiology at German Biblical Society and enrolled his name into many German dictionaries, but moved from Germany to USA and was invited by James M, Robinson as a great German scholar at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and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the methodologies connecting texts and situations each other through Biblical intertextuality which is the most basic endeavor by Rolf Knierim. Then this paper summarizes Wang's study outcomes in flesh back of his contributions to the Korean Biblical Society for the Old Testament. And further this paper is purposed to propose an example way for a Biblical exegesis for following his academic track relinquishing his Biblical works of the Old Testament.

For these study purposes, first of all, this paper outlines some methodologies in harmony of texts and situations, those are suggested by Tai-il Wang, as well as Rolf Knierim endeavored some methodologies of the intertextuality for many years. After this outlines, this paper examines how Wang's Biblical works

can be completed in his many books to screen some Biblical methodologies of the Old Testament.

The Old Testament study by Tai-il Wang is not only simply remained to interpret and annalize the texts of the Old Testament, but also to develop the concrete works for the Old Testament theology. And further he applies his Biblical theology, which is founded by his delicate bases, to current issues and beliefs for today. Also he not only answers as the Old Testament theology to some questions which is raised by this ages, but also as from the monotheistic belief of Judaism to Trinitarian God belief of Christianity. Hence, he requests the prophetic eschatology through all ages to come and beyond thus ages as well. This concern of Tai-il Wang proceeds to the exegetic high level of the Old Testament at the new way of Christian spirituality encountering with the Christian study of Confucian classics.